

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

- 브리퍼 :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 -

< 1. 인사말씀 >

□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.

< 2. 우리 해역·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>

□ 8월 16일 기준,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지난, 월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5건(금년 누적, 6,028건)이었습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* (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) 붕장어 11건, 갈치 6건, 살오징어 5건, 광어 5건, 참조기 4건 등

○ 월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체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72건(금년 누적, 3,431건)입니다. 전부 적합입니다.

□ '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' 운영 결과입니다.

○ 시료가 확보된 경남 통영시 소재 위판장 삼치 1건, 전남 고흥군 소재 양식장 흰다리새우 1건을 조사한 결과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○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54건을 선정하였고, 140건을 완료하였으며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
- 현재 14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-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.
 - 8월 11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건(금년 누적, 3,317건)이고,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.
-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.
 - 지난 브리핑 이후,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
 -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, 이바라키현,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56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, 모두 적합이었습니다.
-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 - 8월 16일 기준,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, 충남 만리포, 전남 울포 등 5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- * 인천 을왕리·장경리, 전남 신지명사십리·울포솔밭, 충남 만리포
 -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-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.
 - 먼저 연안 긴급조사 결과입니다. 8월 13일부터 3차 긴급조사에 착수하여 어제까지 서남해역 3개 정점에 대한 세슘 분석이 완료되었으며,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 - 3차 긴급조사는 어제까지 서남, 제주, 남중 해역 등 5개 권역에 대한 채수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며,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
 - 다음으로 원근해 긴급조사 결과입니다. 8월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, 어제까지 9개 정점에 대한 세슘 분석과 10개 정점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이 완료되었으며,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< 3. 인터넷 포털사이트(네이버)를 통한 해양방사능 정보 공개 >

- 다음으로 해양 방사능 안전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지난 7월 25일부터 네이버(Naver)와 다음(Daum)에서 “수산물 방사능”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시면, 수산물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 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이에 더해, 지난주부터 네이버에서는 수산물 안전성 뿐만 아니라 우리 바다의 방사능 안전 정보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○ 네이버 검색창에서 “해양 방사능” 등으로 검색하시면,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안전 현황을 신호등 형태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● : 안전 / ● : 관심 / ● : 위험

○ 특히, 해양 방사능 신호등의 “안전” 기준은 세계보건기구(WHO)의 먹는 물 기준보다 100배 더 강화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쉽고 편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○ 이상입니다.

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

- 브리퍼 :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-

< 1. 인사말씀 >

□ 안녕하십니까.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윤현수입니다.

< 2. 한일 실무기술협의 일정 >

□ 지난주 월요일(8.7)에 개최된 한일 실무 기술협의를 이어 추가협의를 오늘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.

○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양국이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늘 다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.

○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여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화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.